자산관리·자기계발도 맞춤형 진화

20~30대 MZ 세대 '아트테크' 열광
광주 지니소프트, 거래 플랫폼 제작
농협 전남본부 중장년 농업인 80명
인생 2막 준비 이미지 컨설팅 행사

기술의 발전과 '가치 소비' 확산에 힘입어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자산을 관리하고 자기계발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제 주도권을 쥔 'MZ 세대'(밀레니얼-Z세대)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트 테크'(아트+재테크)에 꽂혔고, 중년 농업인들은 자신을 새롭게 계발하기 위한 '이미지 컨설팅' 시도를 하고 있다.

광주 VR·AR(가상현실·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사 ㈜지니소프트는 연말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활용한 미술거래 플랫폼 '아웃 오브 플레이스'를 내놓는다고 9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실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디지털 세계에서 시간·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미술작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 기술인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디지털 콘텐츠로, 복제가 불가능해 '디지털 세계의 원작'으로 불린다.

20~30대 MZ 세대는 이를 디지털 가상 자산의 하나로 여기며, 예술과 재테크를 접목한 '아트 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해 본격적으로 디지털 그림 열풍이 불고 있다. 한국 출신 미술가 마리킴의 'Missing and found'(2021)는 6억원 가량에 낙찰됐고, 이달 초 부산에서 열린 'NFT 부산 2021'에서는 NFT로 발행한 작품 24점이 경매로 모두 팔렸다.

지니소프트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연말 출시를 목표로 광주·전남을 포함한 참여 작가를 모집하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국내 온라인 미술시장 매출은 6조1000억원으로, 4년 전인 2013년(3조5000억원)의 2배 가까이 뛰었다. 조사 결과 미술품 구매 경험이 있는 2030세대의 17%는 뉴미디어 작품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29) ㈜지니소프트 대표는 "국내외 NFT 예술시장은 올해 전년대비 40배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며 "MZ세대의 '아트 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취향 소비와 연계한 시장을 창출하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의 진출 기회를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 농업인들은 '꽃중년'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미지 탈바꿈'에 나섰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9일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에서 전남지역 중장년 농업인 80여 명을 대상으로 이미지 컨설팅 행사를 열었다.

> ?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블록체인(암호화) 기술에 의해 디지털 콘텐츠 소유권이 보장되고, 복제가 불가능한 '디지털 세계의 원작'으로 불린다.

전남농협이 처음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전남 22개 시·군 여성·중장년 농업인들이 참여했다.

'어쩌다 중년! 중년은 처음이야'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는 컬러이미지 연출, 60 플러스 1일 설계대학, 약력 사진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다.

50대 초반에서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한 참가자들은 이날 자신에게 맞는 색깔을 찾고, 이와 어울리는 화장·의상 등을 갖춰 프로필 사진을 촬영했다.

남성 참가자들도 전문가들의 손을 통해 머리 모양·화장·의상 등을 새롭게 적용하며 자신의 새로운 인상을 찾아냈다.

목포에서 농산물 가공업(장아찌)을 하는 김납생(62)씨는 "최근 고향주부모임 전남도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생활을 확장했다"며 "생애 설계에 필요한 생각과 방향을 정리하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내 목표를 점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동부권에 日 54만t…주암댐 도수터널 개통

여수산단을 포함한 전남 동부권에 하루 평균 54만t의 물을 전할 '주암댐 도수터널'이 9일 개통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이날 주암댐 신규 도수터널 유입부 인근에서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사업' 통수식<사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는 주암호에서 상사호로 용수를 공급하는 신규 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기존 도수터널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및 전남동부권 지역의 용수공급 중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5년 11월 착공한 뒤 올해 6월까지 6년 동안 건설했다. 총 사업비 1703억원이 투입됐으며, 현대건설 외 3개사가 시공했다.

수자원공사는 주암댐 운영의 제약사항이 해소되면서 전남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통수식에는 정재성 영·섬유역 물관리위원장과 허석 순천시장, 류연기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김갑식 한국수자원공사 경영부문이사, 순천시의원, 현대건설,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갑식 이사는 "신규 도수터널의 통수로 새물길을 통해 하루 평균 54만t의 물이 전남 동부권 곳곳에 전해질 것"이라며 "지역민과 공사 관계자들의 6년여 동안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보이스피싱 막아라"…광주은행 피해예방 사례 공유

예방 우수직원 14명과 간담회
올 52억원 예방…지난해 3.5배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가운데)는 지난 8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를 열고 우수직원 14명과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은행 제공>

코로나19 경기 침체 속에서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앞세운 전화 금융사기(보이스 피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8일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직원 간담회'를 열어 지능화·다양화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송종욱 은행장과 보이스 피싱을 예방한 우수 직원 14명이 참석했다.

우수 사례를 공유하면서 보이스 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행사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최근 들어 출금사유, 송금인 인적사항 등을 미리 파악한다"며 "은행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철저히 준비한 후 현금 및 수표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에 고령층이나 주부, 1금융권 거래가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우수 거래 고객(VIP)이나 주거래 은행이 뚜렷한 고객 등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광주은행이 올해 보이스 피싱을 예방한 실적은 이달 기준 52억원에 달하는 등 2018년 7억원→2019년 13억원→2020년 15억원 등 해마다 성과가 늘고 있다.

광주은행 보이스 피싱 및 정보유출 사기 등 금융사기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 접속 정보,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통합 인공지능(AI) FDS'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특이 거래를 감지하는 소요시간을 단축시키고, 범죄 현상을 즉각적으로 분석하며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송 은행장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안기능과 시스템 고도화를 강화하고 있다"며, "금융사기 근절에 앞장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민과 고객님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광주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소상공인 80% "위드 코로나 시행 긍정적"

중기중앙회 603명 조사 결과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5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드 코로나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가운데 58.7%는 확진자 급증은 다소 우려되지만 생업 유지를 위해 위드 코로나 시행은 불가피하다고 답변했고, 22.1%는 크게 우려되지 않으며 위드 코로나는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위드 코로나에 따른 확진자 급증이 심각히 우려되며 위드 코로나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18.7%였다.

코로나19 이전 월평균 매출 대비 위드 코로나 이후의 회복 정도에 대해서는 62.4%가 25% 미만이라고 답했다. 25% 이상~50% 미만은 20.2%였고 100% 이상이라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연말 송년회 시기인 11~12월 예약 손님 증가 수치와 관련해선 지난해 동기 대비 25% 미만이라는 응답이 85.4%를 차지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

비트코인, 8천200만원 돌파
7개월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

9일 오전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8200만원을 넘어서면서 약 7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이날 오전 9시 50분 1비트코인은 8203만9000만원까지 올라, 지난 4월 14일 기록된 최고가(8199만4000원)을 210일 만에 경신했다.

빗썸에서도 오전 10시 1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54% 오른 8197만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의 종전 최고가는 8148만7000원(4월14일)이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62.46 (+2.26)
↑	코스닥	1008.68 (+6.18)
↓	금리(국고채 3년)	1.865 (-0.041)
↓	환율(USD)	1177.20 (-5.90)